

'강통전세'로 277억 꿀꺫...전세사기 일당 구속 송치

사기 등 혐의로 72명은 불구속 수사 계속 부동산컨설팅 업체 차리고 강통전세 수법 피해자 125명...'광주 빌라왕' 공모 정황도

강통전세 수법으로 전세 보증금 27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와 사내이사 등 범행을 주도한 일당 3

명을 지난 23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125명의 임차인으로부터 277억원 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리베이트를 주고 바지 매수인들을 모집해 주택 명의를 이전 한 뒤, 전세가를 부풀려 피해자들에게 중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집값에 준하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갱신 뒤 그 돈으로 동시에 빌라를 사들이는 이른바 '강통전세'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4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세운 뒤, 직원들이 세입자를 구해오는 실적을 따라 보너스를 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48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광주 빌라왕' 정모 씨 등과 공모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업체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해 컨설팅계약서·전세계약서·바지매수인 명의 부동산 등기필증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과 '바지 매수인' 등 7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이슬기자



박람회장 청소하는 청소부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5일을 앞둔 27일 오후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청소부들이 박람회장 곳곳을 청소하고 있다.

'마약 혐의' 유아인 조사 후 구속영장도 검토

"구속영장 포함 개별 혐의까지 종합적 검토"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임종식·37)씨를 소환 조사 중인 경찰이 조만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사 이후 구속영장 부분 포함해서 개별 혐의 성립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공급한 의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치료 목적 외에 처방을 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기재 사항 누락 부분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카인 등 마약 투약 공범 여부에 대해선 "아직 수사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부터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당초 지난 24일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조사 일자가 언론에 알려지자 유씨 측은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며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유씨는 프로포폴 상승 투약 의혹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유씨의 상승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가 프로포폴을 상승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총 73회에 걸쳐 4400ml 이상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유씨가 지난 해까지 총 10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유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간이 소변 검사를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검정을 요청했다. 같은 날 경찰은 유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동행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유씨의 모발도 확보한 뒤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그런데 감정 결과 유씨가 프로포폴 외에도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을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씨는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고, 코카인과 케타민 투약 정황도 드러났다. 뉴스

금품 돌려 당선된 신협이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전남 보성 모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보성 모 신협 이사장 A(69)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사장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운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기부행위를 했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5월 사이 신협 이사장 당선을 목적으로 '마을 사람들' 조합원으로 가입시켜달라며 동창 관계인 조합원 2명에게 150만 원을 건네고, 신규 조합원 7명의 가입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러한 범행으로 경쟁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했다. A씨는 2018년 투표 없이 이사장에 당선됐다. 1심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진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A씨의 무거운 죄질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보성=김택순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